
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	<h1>보도자료</h1>			
2021년 10월 1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월 12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	
배포일시	2021. 10. 11.(월)	담당부서	산업환경과		
담당과장	김태우 과장(044-203-4240)	담당자	서민하 사무관(044-203-4246)		

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문의 저탄소친환경화 정책 기반 마련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'21.10.12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,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·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
 - 기업의 저탄소·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 - * 사용후 제품을 분해·세척·검사·보수·조정·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
-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 확대

- (청정생산)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, 미세먼지,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(클린팩토리)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,
- (생태산업개발) 기업 간에 부산물·폐열 등을 교환·재활용하여 환경성·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.


②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

- (순환경제) 순환경제*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, 제품설계, 생산 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
 - * 원료-설계-생산-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자원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경제
- (재자원화)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(도시광산)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,
- (재제조)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(Positive→Negative 방식)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하였다.

<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>

- (배경) 규제혁신토론회('18.1)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'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' 결정
- (개정) (현행)고시 품목(87개)만 재제조로 인정 → (개정안)원칙적으로 모든 품목 가능

-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, 공정개선,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*을 지속 확대하고,
 - * (R&D) '21년 220억 → '22년 390억(案), (비R&D) '21년 24억원 → '22년 40억원(案)
-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,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·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.
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서민하 사무관(☎ 044-203-42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순환경제 및 재제조, 재자원화 산업 개요

□ 순환경제 (CE, Circular Economy)

- (개념) 원료조달, 설계, 생산, 유통, 사용, 재자원화 등 제품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
- ※ (EU) 2050 Net-Zero('19.12) 발표 후 新순환경제 이행계획 발표('21.3)

<제품의 전과정 단계 및 주요 순환활동>



□ 재제조 산업

- (개념) 사용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·조정·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

<재제조 공정 예시(자동차 교류발전기)>



- (중요성) 기존 제품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**신품 제조 대비 에너지·자원 소비를 크게 절감**(통상 80% 내외) ⇒ 탄소중립 실현 기여
 - ※ 노동집약적 공정 → 일자리 창출, 저렴한 가격(신품의 약50%) → 물가 안정에 기여
- (현황) 자동차부품 중심에서 **공작기계, 촉매 등으로 확장** 중이며, 7,500 억원('10)에서 **1조원('17)으로 7년간 약 30% 성장**
 - * (美) 51.7조원, (EU) 46.8조원, (日) 1.74조원이며 의료기기, 항공기 등도 재제조

□ 금속 재자원화 산업

- (개념) 금속자원이 포함된 부산물 또는 사용후 제품을 회수, 파·분쇄, 선별, 정·제련 등 물리·화학적 공정을 거쳐 원료화하는 산업

<금속 재자원화 산업의 개념도>



- (중요성) 천연자원 채굴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, 희소금속 등 국가 핵심자원의 자급률 제고로 **자원안보 강화**에 기여
- (현황) 금속 재자원화 산업 시장규모는 **25.3조원*('19)**으로 국내 금속 자원 수요(약 100조원)의 약 **25%**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
 - * 철 45%, 범용비철 26%, 귀금속 15%, 희소금속 15%로 구성

□ 생태산업개발

- (개념)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·부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활동
- (지원내용) 산단 내·외 기업간 폐·부산물(폐열, 폐수, 폐가스, 폐액 등) **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*** 및 **사업화 지원**('21~'25년까지 81개 산단**)
 - * (네트워크 구성) 부산물-폐에너지 공급·수요기업 및 매개기업(재자원화 기술보유)
 - ** (연도별 실적·계획) ('18~'20)15개→('21)12개→('22)15개→('23~'25)54개

< 폐·부산물 재자원화 사례 >

■ **미활용 소각열 활용 석유화학 공정열원 공급** (울산, '20년도)

- (개요) 미활용 소각열(범우, 온산국가산단)을 활용한 스팀을 생산하여 인근 기업(S-Oil, 제일화성)의 공정 열원으로 공급
- (성과) 시간당 20톤 규모, 중압스팀 생산 및 공급
 - * 연간 4,068백만원 에너지절감 및 18,856톤 온실가스 감축